

코로나재확산에 10월 취업자 42.1만 ↓ ...실업자 21년만에 최대

통계청, 10월 고용동향...8개월째 취업자 줄어
 숙박 및 음식점업 2014년 이후 최대 폭 감소
 청년층 취업자 25만명 ↓ ...11년9개월만 최대
 고용률 60.4%...2012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2만명 넘게 감소했다. 감소 폭 또한 지난 4월(-47만6000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실업자 수는 1999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일시 휴직자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고용 절벽이 오히려 심화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42만1000명(-1.5%) 쪼그라들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크게 확산했던 지난 3월(-19만5000명)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취업자 수가 8개월 동안 줄어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8월 이후 11년 만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10년 2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됐다. 4월(-47만6000명)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

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2월 이후 21년2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 7월(-27만7000명), 8월(-27만4000명)까지 4개월 연속 감소 폭이 축소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39만2000명)부터 다시 확대되는 모양새다.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됐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22만7000명(-9.9%) 줄어들이면서 올해 3월부터 8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같은 방식으로 통계가 개편된 2014년 이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교육서비스업(-10만3000명·-5.5%)도 2월부터 9개월째 쪼그라들었다. 도매 및 소매업(-18만8000명·-5.2%)도 지난해 6월부터 1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제조업 취업자도 전년보다 9만8000명(-2.2%) 줄었다. 2018년 4월부터 21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1월(8000명) 반등했으나 지난 3월(-2만3000명)부

터 다시 내림세로 전환됐다. 감소 폭은 지난해 9월(-11만1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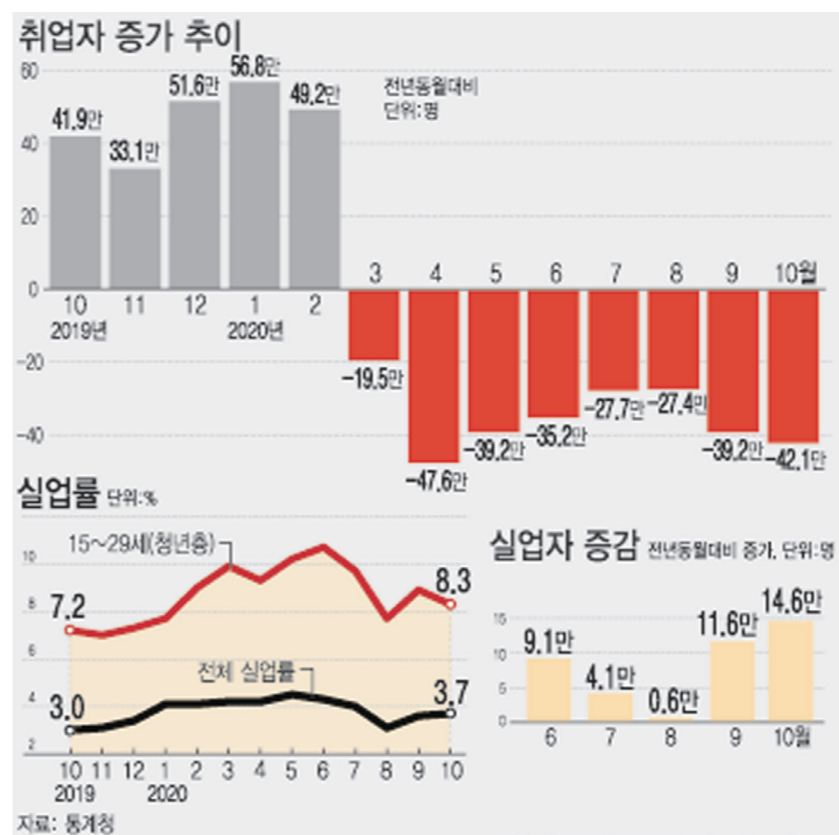
반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2만3000명·11.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5000명·4.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만2000명·4.6%) 등에서는 증가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만 취업자가 증가하고 다른 연령층은 모두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5000명이었으며 이 중 65세 이상이 23만8000명을 차지했다. 반면 30대(-24만명), 20대(-21만명), 40대(-19만2000명), 50대(-11만4000명)에서는 뒷걸음질했다. 이 중 40대 취업자는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60개월째 추락 중이다.

청년층(15~29세)이 겪는 고용 어려움도 지속됐다. 청년층 취업자는 25만명 감소하며 지난 2월부터 9개월 연속 쪼그라들었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 폭은 2009년 1월(-26만2000명) 이후 11년9개월 만에 가장 크다. 청년층 실업률은 8.3%로 2018년 10월(8.4%)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고용률은 60.4%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p) 내려갔다. 이는 2012년 10월(60.3%) 이후 동월 기준으로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보다 1.4%p 하락한 65.9%를 보였다. 2013



년 10월(65.4%) 이후 최저치다.

지난달 실업자는 102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4000명(19.0%) 증가했다. 1999년(110만8000명) 같은 달 기준으로 21년 만에 가장 많았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 역시 3.7%로 1년 전보다 0.7%p 상승했다. 실업률 또한 1999년 10월(5.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다만 2000년 10월에도 지난달과 같은 수치를 보인 바 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 지표3(확장실업률)은 13.2%로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도 3.9%p 상승한 24.4%를 보였다. 두 지표 모두 201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10월 기준으로 최고를 찍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만4000명(0.1%) 증가했다. 1999년 12월(-5만6000명) 이후 가장 적게 증가한 셈이다.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보다

0.8%p 상승한 53.3%로 조사됐다. 하지만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26만1000명(-5.3%), 5만9000명(-4.1%) 감소하며 내림세가 지속됐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명(2.2%)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만8000명(-11.1%) 쪼그라들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3만7000명(-3.2%)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96만6000명으로 122만4000명(-5.5%) 감소했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62만6000명으로 61만4000명(12.2%) 증가했다.

일시휴직자는 49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명(61.6%) 늘었다. 이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일시 휴직자는 무급 휴직이어도 복귀가 확실하고 무급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을 경우 취업자로 집계된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7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8000명(3.1%)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999년 통계 개편 이래 동월 기준 가장 많았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4만7000명(11.7%) 늘어난 23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구직단념자도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 가장 많은 61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11만2000명 늘었다.

김미희기자

앞으로 감염병 다시 돌면 항공권 위약금 '절반'만 내도 된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이 다시 창궐하면 항공권 위약금을 절반만 내도 된다. 집합 제한 등 행정 명령이 발령된 음식점은 위약금의 40%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쳐 이란 내용의 '여행·항공·숙박·외식 서비스업 분야의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추가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해 시행하는 고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별도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 기준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척도가 된다.

김민정기자

유통업계, '네고왕'에 러브콜 왜?

황광희가 프랜차이즈 기업 상대로 가격 협상하는 프로그램



유통업계가 유튜브 웹 예능 '네고왕'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들 '제국의아이들' 출신 황광희가 프랜차이즈 기업을 상대로 가격을 협상하는 프로그램이다.

배달 엠, 온라인 쇼핑몰과 진행하는 할인 이벤트와 달리 제품홍보 뿐만 아니라 고객과 소통,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 등을 누릴 수 있다.

소비자들도 유튜브 뒷광고 논란 후 불신을 드러냈지만, '대놓고 광고한다'는 콘셉트의 네고왕이 등장하자 반기는 분위기다.

기존 이벤트는 할인율이 10~20% 선이지만, 네고왕은 50% 이상 가격 할인 혜택 등으로 구매 심리를 자극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BBQ를 비롯해 GS25, 롯데백화점, 스킨푸드, 하겐다

BBQ 윤홍근 회장은 직원복인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등장, 친근한 이미지를 어필했다. 과거 가맹점주에게 폭언·욕설한 의혹을 받았지만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

롯데백화점도 주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를 확보하기 위해 네고왕과 손잡았다. 지난 8일까지 총 10만명을 대상으로 10만원 구매시 모바일 상품권 2만원을 지급했다. 매일 선착순 1만명에게 할인쿠폰을 지급했는데, 4분여 만에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에서 황범석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는 "2002년 월드컵 때 10% 사은행사를 한게 가장 규모가 컸다"며 "10만원 구매시 2만원 상품권을 10만 명에게 지급하면 20억원인데 상상해본 적도 없다"면서도 수락했다.

그 동안 백화점은 명품, 화장품 등 고급화 전략을 내세웠지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변화를 꾀한 것으로 분석된다.

1세대 로드숍 스킨푸드도 네고왕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지난 6일 공개된 방송에서 스킨푸드 유근직 대표는 "2주간 전 제품 7000원 구매 쿠폰 3장 발행에 합의했다."

19일까지이며 쿠폰 3장 모두 사용시 무료배송한다. 같은 기간 구매 고객 2만명에게 베스트 10종 샘플 세트 선착순 증정하고, '스킨푸드 네고왕 세트' 5000개도 한정 판매한다. 방송 직후 스킨푸드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스킨푸드 홈페이지는 마비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서선욱기자



순천 대표할 새개념 전세형 명품 임대아파트

'대광로제비앙 리버팰리스' 내일 오픈 예정

순천대광로제비앙 리버팰리스'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혜택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보증금을 100% 보증하는 임대아파트'라며 "순천을 대표하는 명품 프리미엄 임대아파트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문의가 뜨겁다"고 덧붙였다.

'순천 대광로제비앙 리버팰리스' 주택전시관은 전남 순천시 연향동 420-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오는 13일(금) 오픈 예정이다.

주택전시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원활한 관람을 위해 방문 예약제 운영되며, 순천 대광로제비앙 리버팰리스 홈페이지(http://순천대광로제비앙.com)에서 예약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1644-3666로 하면된다.

동부채택본부김승호기자